

#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 전주시 수어 문화제 및 심포지엄 개최... 수화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 펼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수화(手話)를 매개로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축제가 열렸다.

전주시는 2일 3일 이틀간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제2회 전주 수어 문화제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북농어인협회 전주지부 전주수화통역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수어 문화제는 청각·언어장애인과 일반 시민이 함께 수화로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 첫날 심포지엄과 둘째 날 기념식 및 수어(수화)경연대회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청각·언어장애인은 필연적으로 '수화'라는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공동체로, '듣는 문화

권'이 아닌 '시각 문화권'의 장애인 특성상 문화공연을 접하기 힘들다. 또 문화공연에도 직접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장애유형 중에서도 문화적 소수자로 인식돼왔다.

이에 시와 전주수화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문화공연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농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수어문화제를 열게 됐다. 특히 올해 수어문화제에서는 지난 8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이후 전주시 농(聾)문화와 수어(수화)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도 열렸다.

국영희 예원예술대학교 교수의 사

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변승일 전 한국농어인협회장,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등 6인의 연사가 농인의 복지향상과 전주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 등을 제시하며 농(聾)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탐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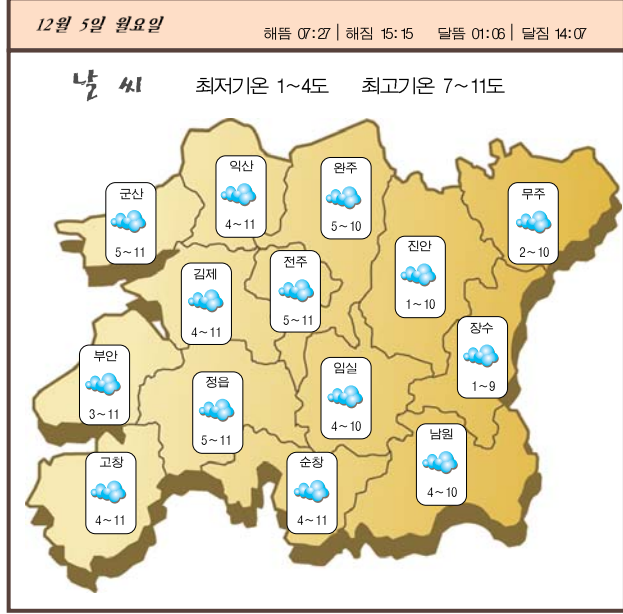
이어 행사 둘째 날인 3일 열린 수어문화제 기념식에서는 농인의 인권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게 '전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번 수어문화제는 13개팀, 71명이 참여한 수어 경연대회를 통해 수어로 언어의 벽을 넘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을 연출하며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장애인 욕구조사와 관련기관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인 2016~2020 장애인복지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5대 분야·15대 중점사업·6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념식에서 "우리 주위에는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차별 앞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 우리가 미처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다"면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전북도 영상회의 운영, 행정부 기관표창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내 영상회의가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회의문화 개선을 위해 연간 600여회의 영상회의를 운영한 바 있으며, 영상회의는 회의에 필요한 출장비용과 이동시간을 절감시키는 등 도정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연초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한 영상회의는 전북도가 가축 전염병 방제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회의매체로 자리잡게 됐으며, 회의소집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과 현장인력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전북도의 구제역 관련 영상회의 활용사례를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재용기자

# 국정vs대안 '편향성 논쟁'으로 변진 역사교과서

## 교육부, 교육청 보조교재 편향된 내용 다수 확인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주요 시도교육청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청의 대안교과서에 색깔론을 지적하고 나서자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보조교재를 분석한 결과 편향된 내용이 다수 확인됐으며 필요한 경우 국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대안 교과서 개발에 나선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 명령과 특정 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도 교육감들은 친일·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학교에 배포되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도교육청에 의해 개발된 보조교재를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도 무조건 군비축소가 필요한 것처럼 서술하고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미화하는 등 편향된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생 교재에 '축창으로 찢렸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학생 발달 수준에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



새만금119 소방정 취항식. 지난 2일 군산 비응관 관공선부두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전북도의회 의원, 군산 부시장, 군산시 의회 의장, 소방대원 등 관련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전북도 소방정 취항식 행사를 가졌다.

들 역시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감의 국정 교과서 거부 움직임이 잇따르자 시도 교육청이 개발한 대안교과서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중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편성을 사실상 거부한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에 학교의 권리인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서울 광주, 전남 등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 조차 추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국정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하면 학교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탄핵정국에서 국정교과서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국정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과서 국

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라며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국정교과서 검토본의 검토 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역사담당 교사들도 입장은 같은 편이다. 전교조가 지난 1일부터 온라인에서 전국의 중·고교 역사교사들로부터 '국정교과서 불복종 선언' 서명을 받고 있는데 하루만에 780명의 교사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원광대, 대학 진로교육 우수사례 선정 표창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주최한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대학 진로교육 우수사례'에 선정돼 표창장을 받고, 진로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학 진로교육 우수사례는 전국 대학 간에 취업과 창업 성공 노후를 공유하기 위해 대학들이 신청한 144개 프로그램 중 21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책자로 발간됐으며, 지난달 30일 대학 진로교육 및 취업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진로교육 우수사례 확산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 원광대를 비롯한 3개 대학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로는 취업 분야에 원광대의 '지역 기업의 이해', 성신여대의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창업 분야에서 동명대의 '정규 창업교육을 통한 특허

출원'이 각각 소개됐다. 원광대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업의 이해' 교과목은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도내 5대 성장동력 산업인 농생명·식품, 탄소·융복합소재, ICT융합, 자동차·기계, 그린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의 지역 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특히 취업 토크 방식을 활용한 참여 유도형 수업을 진행해 학생 만족도가 높은 교과목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원광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창업지원센터 사업을 유치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현과 인성을 갖춘 인재 배출을 위한 탐상머리 취업 멘토링 등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 제24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 2016.11.15. ~ 12.14.(30일간)

장소 :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

안건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시책보고 등

## 고창군의회

